

[2001 성탄축하말씀집회]

첫째 날 : '마굿간에 오신 예수님'

하용조 목사 / 눅 2:8~14 / 페이지 수: 6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은 성탄절을 세상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성탄전도 집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자꾸 흩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이 성탄절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드릴 가장 위대한 선물을 생각해 보니 '새 신자'였습니다. 동방박사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한 성탄절과 부활절 전도 집회는 교회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에 얽힌 어떤 추억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따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은 모두 교회를 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벽 송을 돌던 일, 새벽 송 돌다가 화장실에 빠진 일, 화장실 냄새를 풍기면서도 새벽 송 하는데 쫓아다니던 일, 창호지에 '축 성탄'을 쓰고 이집 저집 다니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밤새도록 찬송가를 부르던 일, 집집마다 먹을 것을 주면 교회에 가지고 와서 먹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그때에는 컴퓨터, 게임, 영화가 없어서 교회 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았고 예수님 따라 살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저는 이때쯤이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성탄절만 되면 라면을 사 들고 산동네를 찾아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라면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시끄럽게 살지 말고 가족끼리 모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고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번 주에 우리는 '40대 남성을 위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이 264명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람이 283명이었습니다. 참석한 인원이 모두 6백여 명인데 이렇게 응답해준 사람이 547명입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흥분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최대의 선물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방황하는 40대가 예수님께 돌아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

음이 가난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만하면 자기가 보이지만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국 남성 40대가 전 세계 사망률1위라고 합니다. 가장 스트레스와 상처가 많은 세대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부하도 상사도 아닌 중간 위치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가정에서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늙으신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렵기만 합니다. 서로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예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부서지고 파산된 마음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어. 사방이 막혔고 우격다짐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겉으로는 승리한 척하지만 스스로는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가난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대답하세요. 나는 인생의 의미를 잃었고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거부하는 마음은 오만한 마음입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암에 걸리고 부도가 나와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뜹니다. 그런 환경에서야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찾고 자신이 부도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핑계 대는 것, 원망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신분이 하나님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낮추시고 희생시키셨습니다. 결국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타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소박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궁전이 아닌 마굿간에서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집이 없고 방이 없어서 싸구려 여관 마굿간에서 태어났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 저의 메시아가 왜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

예수님의 생애 중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그 첫째가 바로 예수님이 마굿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가도 저를 상전

대접하십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자리로 마련해 주십니다. 저 같은 죄인도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마굿간 여물통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또 하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돌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집 한 칸 없이 떠돌이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집 없는 분들은 너무 서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신분이 천한 사람, 창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일 석가처럼 궁궐에서 부자로 태어나셨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참혹하게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찢겨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요,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위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4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3년 동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면 듣기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말 저말 하며 설득하려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 내 주장을 말하기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환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을 반갑게 맞았던 사람들은 양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는 낮에 일하는 목자보다 더 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환영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8~9절을 보십시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 마굿간에 태어난 예수, 집 한 칸 없이 떠돌던 예수, 33세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10~11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세상과 우주에 가장 기쁜 소식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과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자의 최대의 고민은 죽은 후에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이 있는 지 없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당신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만큼 기막힌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동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신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간은 불행합니다. 모든 기다림이 끝났다면 사는 데 의미가 없을 것입니

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일이 없다면 오늘의 삶은 죽음입니다. 영원이 없다면 현실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그리움과 목마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혼에 실체가 없다면 그런 마음이 생길리가 없습니다. 그저 배불리 먹고 살면 됩니다. 영혼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워하고 목말라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12~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출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천상의 대 합창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의 합창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감동이 됩니다. 이 질적인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 돌아보는 성탄절

저는 오늘 여기서 예수의 정신은 ‘마굿간 정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은 ‘헝그리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굶어죽을 사람이 못할 짓이 없다는 뜻으로 굶어 죽을 각오로 살자는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마굿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굿간을 경험해본 사람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어떤 것이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거나, 권력을 가졌다가 잃어버리면 살기 어렵습니다. 권력을 가졌던 것만큼 비참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던 사람이 잃는다 해도 그다지 힘들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굿간에서 시작했기에 어떤 고난과 배고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도 여기까지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높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합니다. 상할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누려야 할 사람입니까? 그렇게 높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좀 낮아지면 안 됩니까?

해직을 당해도 ‘그게 내 수준이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섭섭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이미 열두 번도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굿간 정신입니다.

마굿간에 살아본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묻습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 ‘왜 병들었냐’고 합니다. 마치 병든 것이 무슨 잘못인양 말합니다. 여러분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망하고 싶어 망하는 사람 없고, 못나고 싶어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서 받은 복은 우리 성도가 무슨 병에 걸려도 그 아픔과 고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에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충고하지 마십시오. 이해하고 받아들

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굿간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탄절에 힘없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시간 내서 라면 한 상자, 계란 한줄 사들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탄을 맞을 자격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카드와 트리, 캐롤은 성탄의 상징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굿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다독거리고 격려해주는 것이 성탄이고, 마굿간 정신입니다.

성탄을 아름답게 맞아야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에게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간에 전쟁이 났을 때 어떤 분이 2천만 원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프간의 전쟁고아들을 위해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한 사람이 돈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빈라덴이 잡힐 까 안 잡힐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전쟁의 고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파키스탄대사가 우리교인이어서 그분에게 이 돈을 의탁했습니다. 전쟁고아들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미 그분 마음에는 성탄이 있습니다. 억울한 자, 갇힌 자, 병든 자, 돌봄을 받지 못한 자를 찾아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맞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곳이 마굿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마굿간처럼 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마굿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곳,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십시오. 이것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경험할 때 동방박사뿐 아니라 밤에 양 치는 목자가 경험했던 환희, 희열, 감격, 감사, 메시아를 만나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굿간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경허하고 가난하여질 때 좌절과 절망이 축복의 신호탄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아버지.

복잡했던 내 마음

산만했던 내 마음

방향을 잃어버렸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쁨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